

# 특집 2050년 탄소중립 임팩트 탄소중립 시대의 지속가능 금융

나가시마 요시노리(中島 芳徳)

노무라종합연구소(NRI) 서스테이너빌리티 사업 컨설팅부 그룹 매니저

## CONTENTS

- I 금융업계의 탄소중립 논의의 역사
- II 가속하는 국제적 이니셔티브의 공개 요구와 기업의 대응 부하 증대
- III 확장하기 시작한 지속가능 금융
- IV 금융업계와 기업·지자체 사이에 요구되는 ‘인게이지먼트’

## 요약

1 금융업계에서는 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UNEP FI)와 EU,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CO<sub>2</sub>를 포함한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해 금융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1990년대부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등이 투자, 용자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책정했다.

2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 평가 기관, NGO가 기업에 대해 ‘파리협정’에서 규정한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전과 비교해 2°C 미만으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 시나리오(2°C 시나리오)에 입각한 기업 활동의 중장기 로드맵 제시 및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공개 대응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3 국제적인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각종 가이드라인의 정비 추세에 따라 일본에서는 환경성, 경제산업성, 금융청 등의 각 부처가 제도 설계 및 가이드라인 책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을 통한 자금 조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4 금융기관에는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이 늦은 기업·지자체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 기업·지자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게이지먼트(engagement)’의 역할이 요구된다.

## I. 금융업계의 탄소중립 논의의 역사

### 1. 유엔 주도로 ESG 금융 추진

금융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은 1992년에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채택과 같은 시기에 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UNEP FI)가 설립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UNEP FI는, UNEP와 세계 각지의 200개 이상의 은행, 보험, 증권 회사 사이에서 경제적 발전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배려를 통합한 금융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인 이니셔티브이다. 일본에서는 2021년 3월 시점 14개 회사<sup>1)</sup>가 서명했다.

이후 06년에 당시 유엔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이, 금융기관, 특히 기관 투자자에게 투융자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ESG 과제를 수탁자 책임 범위 내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제창한 것을 받아들여 UNEP 및 UN 글로벌 콤팩트가 추진 주체가 되어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이 제정되었다. 21년 3월 시점, 세계적으로 3,841개사, 일본에서는 91개사(어셋 오너 24개사, 운용사 56개사, 서비스 프로바이더 11개사)가 PRI에 서명<sup>2)</sup>했다.

08년의 리먼 쇼크와 파리협정의 영향으로 중장기 및 비재무 요소를 가미하여 투융자 판단을 내리는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졌다. 12년에는 UNEP FI 주도로 세계의 보험 회사에 의해 ESG 리스크·기회에 대한 대응을 프레임워크화한 ‘지속가능보험원칙(PSI)’이, 14년에는 뱅크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씨티뱅크, 크레딧에그리플, JP모건체이스의 4개 은행에 의해, 그린본드의 투명성과 공개를 촉진하고 그린본드 시장 정비 촉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그린본드원칙(GBP)’이 작성되었다. 현재, 그린본드원칙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사무국을 맡고 있다.

### 2. 변곡점이 된 파리협정과 TCFD 제언

2015년 9월, UN 서밋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가 채택되어 선진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개발 목표로서 2030년을 기한으로 정한 포괄적인 17개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15년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세계 공통의 장기 목표로 산업혁명 이전 대비 평균 기온 상승을 2℃ 미만(나아가 1.5℃로 제한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세워 21세기 후반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 제로로 만든다는 취지의 ‘파리협정’이 채택되어 16년 11월에 발효되었다.

파리협정이 채택·발효되어 각국이 GHG 감축 목표를 책정·제시하고 있으며(표 1), 일본도 16년 5월에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법에 의거한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으로서 ‘2030년도에 2013년도 대비 26% 감축, 2050년에 8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웠다(현재는 20년 10월 스가 총리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으로 인해 ‘2050년에 GHG 배출량을 실질적 제로’로 변경).

또 SDGs 채택 직후인 15년 11월에 개최된 G20에서 재무장관 및 중앙 은행장의 회합 요청에 따라, FSB가 기후 관련 정보 공개 및 금융기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마이클 블룸버그를 의장으로 내세운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가 설립되어 17년 6월에 최종 보고서(TCFD 권고안)를 발표했다. TCFD 권고안에서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관한 다음 항목에 대해서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지배구조(Governance): 어떠한 체제에서 검토하고 그것을 기업 경영에 반영할 것인가.
- 전략(Stratgy): 단기 · 중기 · 장기에 걸쳐 기업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
-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기후 변화 리스크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특정, 평가하고 또 그것을 줄이려고 할 것인가.

- 지표 및 목표(Metrics and Targets): 리스크와 기회의 평가에 대해서 어떠한 지표를 이용하여 판단하고 목표 진척도를 평가할 것인가.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이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TCFD 가이드라인)’을 18년 12월에 책정한 것을 계기로 TCFD 권고안에 대응하기 수월해졌고, 19년 5월 TCFD 컨소시엄이 설립되는 등 TCFD 권고안에 대한 지지가 급속히 늘어나 현재는 세계에서 지지하는 기업 수가 가장 많다(그림 1, 2).

표1 각국의 GHG 감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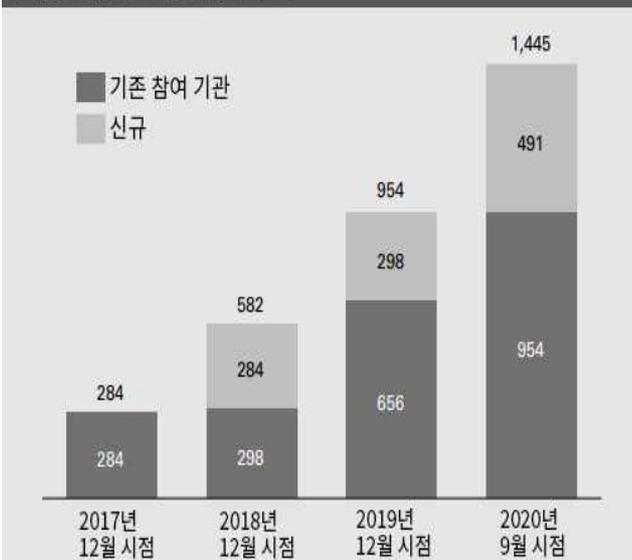
일본	2030년에 -26%(2013년 대비) 2050년 넷제로(Net-zero)
미국	2025년에 -26%~28% (2005년 대비)
EU	2030년에 -55% (1990년 대비)
러시아	2030년에 -70% (1990년 대비)
캐나다	2030년에 -30% (2005년 대비)
호주	2030년에 -26% ~ -28%(2005년 대비)

※ 진한 글씨는 2020년4월 이후에 감축 목표를 갱신

### 3. 은행업계가 PRB 서명을 계기로 ‘탈탄소 사회’를 위한 투자 원칙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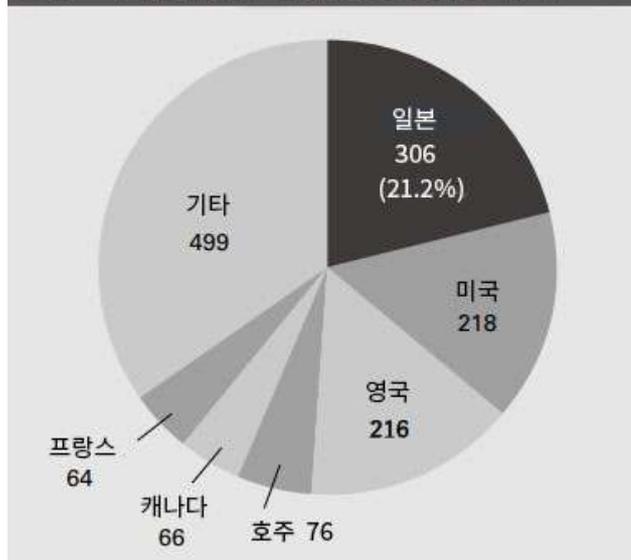
2019년 9월, UNEP FI는 은행업계의 투자자에게 관한 ‘책임은행원칙(PRB: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을 발표했다. PRB는 아래의 6개 원칙으로 이루어졌고 21년 4월 말 시점, 세계 각국의 226개사가 서명했다. 일본에서는 대형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8개 은행(미쓰이스미토모 트러스트 홀딩스, 미쓰이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미쓰비시 UFJ 파이

그림1 TCFD 권고안 찬동 수 추이



출처) TCFD 컨소시엄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림2 국가별 찬동 수 비율 (2020년 9월 말 시점)



출처) TCFD 컨소시엄 자료를 토대로 작성

넌셜 그룹, 시가 은행, 노무라 홀딩스, 규슈 파이낸셜 그룹, 신세이 은행)이 서명했다.

- ① 정합성: SDGs와 파리협정이 제시한 니즈와 목표가 자사 경영 전략의 정합성에 부합할 것.
- ② 임팩트와 목표 설정: 사업이 일으키는 악영향을 줄이고 좋은 영향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공표할 것.
- ③ 고객: 고객에게 세대를 초월해 번영을 공유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촉진할 것.
- ④ 스택홀더: 이해 관계자에게 조언을 구하며 연계할 것.
- ⑤ 지배구조와 기업 문화: 영향력이 큰 영역에서 목표를 세워서 공개, 실천할 것.
- ⑥ 투명성과 설명 책임: 정기적으로 실시 상황을 검증, 사회 전체의 목표를 위한 공헌에 대하여 설명할 것.

이 원칙의 특징은 서명 기관에 ‘임팩트 평가’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즉 단순히 목표를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영향 정도를 측정하여 이에 따라 전략을 구축·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이 석탄화력발전 등에 신규 투자를 진행하지 않으리라 선언하기 시작했다.

## II. 가속하는 국제적 이니셔티브의 공개 요구와 기업의 대응 부담 증대

최근 글로벌 기업의 기후 변화 대책에 관한 정보 공개 및 평가의 국제적 이니셔티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NGO인 CDP는 연금기금 등의 기관 투자가의 대리인으로서 기업에 ‘기후 변화’, ‘물’, ‘산림’, ‘공급망’ 등의 질문서를 송부하고 있으며, 기관 투자가와 투자고문 회사 사이에서는 ESG 투자의 중목 선정 기초 데이터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해서는, 2020년 일본의 응

답 기업 375개사 중 53개사가 최고 평가인 A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sup>3)</sup>. 또 서스테이널리티스, MSCI, FTSE인터내셔널 같은 기업 평가 기관도 독자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 상황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에서는 기업이 동등하게 비교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GHG 배출량의 산정 방법으로서 GHG 프로토콜<sup>4)</sup>의 각종 기준류(코퍼레이트 기준, 스코프 3 기준, 스코프 2 가이드스 등)의 이용이나 파리협정이 요구한 수준으로한 5~15년 뒤의 GHG 감축 목표를 기업이 설정 및 공개하는 SBT(Science Based Targets) 인정<sup>5)</sup>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제적인 디팩토 스탠다드(De facto Standard)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평가받는 측인 기업은, 실제 기업 활동에서 공급망 전체의 GHG 배출량 파악의 입도(粒度) 및 감축 목표의 책정 방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제품·서비스에서 발생하는 GHG 배출량을 각 프로세스에서 배출량의 원단위부터 누적하여 산출할 것인지, 또는 기업 전체에서 나오는 GHG 배출량을 산업연관표 등의 기준에 따라서 제품·서비스 단위로 안분(按分)하여 배출할 것인지, 나아가서는 협력사에 얼마나 정확한 GHG 배출량 및 감축 목표를 제시받을지 등 다양한 과제와 난관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환경성에서는 15년에 ‘그린 벨류체인 플랫폼<sup>6)</sup>’을 세워 공급망 배출량의 산정 방법과 가이드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을 제공하며 기업의 GHG 배출량 산정에 대한 부담 경감과 표준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또 CO<sub>2</sub>배출권 거래와 국제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되면서 실질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의 정확한 파악 및 공개를 기업에 요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기업 측이 대응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 Ⅲ. 확장하기 시작한 지속가능 금융

#### 1. 키워드는 ‘그린’, ‘서스테인러빌리티’

2014년에 그린본드원칙(GBP)이 나온 이후, 금융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린’을 키워드로 파이낸스 스킴(Finance Scheme)이 정비되어 왔다. 그린본드원칙에서는 주로 다섯 가지의 환경 목적(① 기후 변화 완화책, ② 기후 변화 적응책, ③ 자연환경 보전, ④ 생물 다양성 보전, ⑤ 오염 대책)에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정비했으며, 20년에는 국내 그린본드 발행액이 1조 엔을 넘어섰다. 또 채권뿐만 아니라 용자(론)에 의한 자금 조달 보급을 목적으로 한 Loan Market Association(LMA) 등에 의해 18년에 ‘그린론 원칙’이, 19년에는 빌런 측의 지속가능 경영의 고도화를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 연결하기 위한 ‘서스테인러빌리티 링크 론 원칙’이 나왔다.

일본에서도 환경성이 국내에서 그린본드·그린론 보급을 위하여 ‘그린본드 가이드라인’(17년 초판, 20년에 개정), ‘그린론 및 서스테인러빌리티 링크 론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는 등 그린 파이낸스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발행자인 기업이나 지자체의 입장에서 그린 파이낸스로 자금 조달을 시행하면 어떠한 메리트가 있을까. 환경성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아래의 4가지 사항이 발행자의 메리트라고 정리되어 있다.

- ① 서스테인러빌리티 경영의 고도화로 인한 기업 가치 향상
- ② 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적극성을 어필하여 사회적 지지 획득
- ③ 새로운 투자자와의 관계 강화에 따른 자금 조달 기반의 강화
- ④ 투자·평가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며

로 중장기적인 시야에서의 사업성 평가에 기인한 호조건 획득

그린 파이낸스의 좋은 사례로서 도쿄다테모노(부동산 개발 업체/역주)의 대책을 소개하겠다.

도쿄다테모노는 2030년경을 목표로 한 장기 비전으로 ‘차세대 디벨로퍼’를 발표하며, 사업을 통해 ‘사회과제 해결’과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양립하기 위한 ESG 경영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그룹 전체에서 적극적으로 서스테인러빌리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 비전 실현을 위해서 도쿄다테모노가 시작한 서스테인러블한 프로젝트에 ESG 파이낸스로 조달 자금을 충당하는 사이클을 한층 가속화시켜, 탈탄소 사회의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공헌을 위해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창업 당시부터 본사를 세운 ‘야에스·니혼바시·교바시 지역(니치하치코 지역)’에서는 복수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기획·실시하고 있어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의 유치와 크로스테크(X-Tech)·SDGs·식품·모노즈쿠리(장인 정신에 기반한 제조 문화/역주)를 지원하는 대책 등 니치하치코 지역의 역사와 문화, 다양한 지역 특성을 살린 마을 만들기에 나서, 니치하치코 지역의 더 나은 발전과 국제도시 도쿄의 경쟁력 강화에 공헌함과 더불어 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다테모노는 19년 3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부동산 섹터로는 세계 최초) 그린·하이브리드 본드를, 20년 7월에는 부동산 섹터로서 국내 최초인 서스테인러빌리티 본드(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환경/사회공헌 채권)를 잇달아 발행했다. 특히, 서스테인러빌리티 본드는 빌딩 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기후 변화 대책이나 방재(防災)·감재(減災) 대책의 강화, 의료 연계, 식품 과제 해결, 이노베이션·에코시스템의 형성 등 사회과제의 종합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장이 될

‘니치하치코 지역의 마을 만들기’ 전체를 패키지로화하고 있으며 일반 사업 회사의 서스테이너빌리티 본드로서 국내 최대 발행액·최다 투자 표명 수를 달성했다(20년 7월 시점).

## 2. 트랜지션 파이낸스의 조류

그린 파이낸스는 주로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자금 조달이다. 그렇지만 기업과 사회 전체가 서스테이너블(지속적)하게 성장하면서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현재 CO<sub>2</sub>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과 프로젝트를 일률적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탈탄소를 위한 이행 전략(트랜지션)이 중요한 관점이 된다.

반면에 이러한 트랜지션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차의 제조와 판매를 하는 자동차 업체에 대한 투자는 트랜지션 파이낸스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등의 다양한 논점이 있다. 따라서 ICMA는 20년 12월에 ‘클라이메이트 트랜지션 파이낸스 핸드북’이라는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 가이드에서는 트랜지션 파이낸스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① 트랜지션 파이낸스에서는 그린 파이낸스처럼 조달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이 아니라, 탈탄소를 목표로 한 기업의 이행 전략의 신뢰성이 요구된다.

② 장기 목표로서는 파리협정의 목표 수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그에 도달하기까지의 이행 경로(GHG 감축 경로)에 대해서는 업계나 지역에 의한 차이를 인정한다(이로 인해 다양한 기업이 트랜지션 파이낸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③ 이행 전략 실시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에서 설비 투자 계획 등의 공개도 요구한다.

④ 트랜지션 파이낸스의 대상 사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지션 파이낸스에서 공개가 권고되는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공개 권고 사항: 1. 기업 기후 변화 전략과 가버넌스, 2.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환경 중요성, 3. ‘과학에 기반한’ 목표(SBT)와 과정을 포함한 이행 전략, 4. 실시의 투명성).

이 가이드를 발표를 계기로 국내향 트랜지션 파이낸스의 바람직한 방식을 검토하기 위하여, 경제산업성, 환경성 및 금융청이 공동으로 ‘트랜지션 파이낸스 환경 정비 검토회’를 시작했다. 착실한 저탄소화·탈탄소화에 대비해, 이행 단계에 필요한 저탄소 기술에 대한 트랜지션 본드 또는 론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사업 회사, 증권 회사, 은행, 평가 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IV. 금융업계와 기업·지자체 사이에서 요구되는 ‘인게이지먼트’

지금까지는 금융업계에서의 탄소중립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금융기관의 투자 대상인 기업과 지자체 입장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은 상당히 이루기 어려운 목표이며, 어떻게 대응할지 정해지지 않은 기업과 지자체도 많은 것이 실정이다. 특히, 단독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는 기업이나 20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기업은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이 코스트 증가, 자신의 존재 의식 부정의 요인으로 사료되어, 검토 그 자체를 경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금융기관이 탈탄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없는 기업 및 지자체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금융기관의 시점에서 보면 옳은 행동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특

히 지역에 밀착된 많은 중견·중소기업, 지자체에 투융자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 금융기관으로서는 스스로 거래처를 줄이는 행위이며, 중장기적으로 지역 전체의 쇠퇴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것은 탄소중립을 지역, 또는 업계 전체에서 어떻게 해서 실현하는가의 검토를 지원하는 이른바 ‘인게이지먼트’의 실천이 아닐까.

기후 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을 지역이나 기업과 대화해나가며 ‘인게이지먼트’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로서 홋카이도 은행의 수산가공업 지원을 소개하겠다. 홋카이도는 수산업을 기간 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과 어업 수역의 국제 규제 등의 영향을 받아 기존 어종(고등어, 오징어 등)의 어획량이 대폭 감소하여 수산업 전반의 쇠퇴라는 지역 과제를 안고 있으며, 홋카이도 은행의 주요 거래처인 수산물 가공 업자도 폐업이나 해외 거대기업의 경영 통합 등에 휘말리고 있다. 이 때문에 홋카이도 은행은 업계 전문가와 지자체 및 외부의 의견도 참고하며 기후 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업계 공급망의 영향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수산가공업 전반의 바람직한 모습과 탄소중립 대응으로 발생하는 기회와 위협을 정리하고 수산가공업에 대한 지원 메뉴를 정비했다.

앞으로는 원재료가 되는 생선의 안정적인 어획량 확보를 위한 양식 지원과 어업자의 IoT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지원, 물류의 탈탄소화 실현 등, 수산업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 1) <https://www.unepfi.org/regions/asia-pacific/japan/aboutunepfi>
- 2) <https://www.nepri.org/signatories>
- 3) CDP에 기후변동 리포트 2020 :일본판
- 4) <https://ghgprotocol.org/>
- 5) <https://sciencebasedtargets.org/>
- 6) <http://www.env.go.jp/tarth/ordanka/supplychain/gvc/index.html>

## 저자소개

나가시마 요시노리(中島 芳徳)

노무라종합연구소(NRI) 서스टे이너빌리티 사업 컨설팅부

서스टे이너블 파이낸스 전략 그룹

그룹 매니저

전문 분야는 금융기관 사업 전략 입안, 서스टे이너블 파이낸스 분야 조사·컨설팅, 신규사업 개발

본 기사는 지적재산창조 2021년 6월호에서 발췌하여 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처: [nri-seoul@nri.com](mailto:nri-seoul@nri.com)

홈페이지 [www.nri-seoul.co.kr](http://www.nri-seoul.co.kr)의 insight메뉴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호에 대한 전문 및 기사(일본어)는 [www.nri.com](http://www.nri.com)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본 칼럼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엄격히 금합니다.

Copyright © by Nomura Research Institute, Ltd. All rights reserved.